

解放後(1945~1950) 民族文學論의 두 흐름

林 在 海

<目 次>

1. 문예사조로서의 민족문학
2. 민족문학론에 대한 연구의 반성과 논의의 방향
3. 민족문학론, 그 태립적 동질성
4. 민족문학·민족문화의 개념, 그 인식의 극단성
5. 詩作活動, 그 이질적 향토정서
6. 민족문학론, 그 나아갈 길

1. 문예사조로서의 민족문학론

문예사조에 관한 개념 규정은 적지 않게 논의되어 왔지만 그 본질을 선명하게 들어내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탓으로, 흔히 문예사조라고 하면 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외국 문예사조에 대한 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선 문예사조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변천 분화된 정신적 조류”를 문예사조로 규정한 것은¹⁾ 문예사조의 실상을 밝히는 데 상당히 근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예사조를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며 수동적인 태도이다. 물론 문학을 전제로 한 역사적 전개이긴 하지만, 문예사조는 역사적 전개 이상으로 복선적이고 다양하며 그 기복도 심하다. 또한 역사적 전개를 앞질러서 생성될 수도 있고 문학사 전개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예사조는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서 결과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역사의식의 자각으로서 문학사 전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문학활동에 발전적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 조류’라고 규정한 것은 문예사조의 자연발생적 형

1) 金允植, 韓國近代文學의 理解(一志社, 1973), 92면.

성, 또는 무의식적 형성을 어느 정도 강조하는 셈이다. 그러나 문예사조는 보다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문학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정신적인 조류가 주장이나 활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문예사조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예사조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 문예사조는 “문학에 관한 주장이나 문학활동이 운동으로 나타나 일정한 체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규정해 보기로 한다. ‘문학에 관한 주장’은 문학관이나 문학론을 의미한다. 이는 문학에 관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생각은 구의식적일 수도 있으므로 주장이라고 했다. ‘문학활동’은 주로 창작활동이 되겠으며 비평활동도 포함된다. ‘운동’이라고 한 것은 어느 개인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사람이 이에 함께 참여하고 활동하며 보다 적극성을 띠는 뜻이다. 그러나 운동으로 나타나되 ‘일정한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문예사조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문학운동일 따름이다. 동인지 활동이 곧 문예사조로 연결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예사조라고 하면 곧잘 “○○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서구문학이 곧 세계문학이라는 서구문학 중심주의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진문화권의 번두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제3세계 국가에서는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민족문학의 우수성을 되찾으려는 일련의 문학운동이 제각기 일어나, 자국문학의 주체적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국의 문학에 관한 주장이나 문학활동이 운동으로 나타나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면 세계적인 보편성과는 무관하게 문예사조라고 할 수 있다.

문예사조는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외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수도 있으나, 문예사조를 위와 같은 개념에서 받아들이다면 자생적으로 형성된 문예사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문학의 나아갈 바를 조명해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의 후진국이라고 여겨서 외래적인 문예사조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쉬운데, 자생적인 문예사조도 엄연히 존재한다. 민족적 응집력이 문학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때 문예사조는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문예사조는 “민족문학론”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문예사조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으레히 외국의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 문학에 관한 독자적인 주장이나 활동이 운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고 되물어 보면 그렇지도 않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 문학사에 한 분기점을 그을 수 있는 자생적 문예사조로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을 하면서 형성되었던 “민족문학론”을 들 수 있다. 이틀 편의상 해방후 민족문학론이라고 한다면, 이는 8·15해방과 함께 일체의 침략적인 국책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 국민문학을 극복하면서 대두되어서, 6·25 이후 서구 문예사조가 잠다하게 수입되어 난맥상을 이루던 이전 시기까지 전개되었던 민족문학운동을 일컫는다.

이 때의 민족문학론은, 뜻하지 않은 남북 분단의 불행을 겪게됨으로써 남북의 대립된 정치체제가 지닌 이데올로기의 차이 때문에, 자연히 대립과 격돌로 분열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로 문학단체의 양립과 문학이론의 분열적 논쟁이 불가피했고, 다같이 민족문학론을 주장하면서도 그 성격은 두 개의 흐름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시기의 민족문학론을 어떻게 간단하게 논급하고 말 것은 아니다.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양측이 주장한 민족문학론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의견을 달리한 점은 무엇인가를 가리고, 이러한 견해의 엇점과 강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민족문학의 올바른 수립과 창조적 발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족문학의 수립이 우리 문학의 당면한 과제라면 해방후 민족문학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민족문학의 개념 및 그 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외래사조의 수입 경로나 영향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일층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시작된다.

2. 민족문학론에 대한 연구의 반성과 논의의 방향

대부분의 문예사조사나 문학사는 1940년대 이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그간의 사정이다. 이는 40년대 이후의 문예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현단계로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논의를 유보해 둔 상태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던 우리 문학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

문예사조에 관한 저서들은 주로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문학사는 해방 이전의 시기까지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 최근까지의 문학사를 다룬 책들도 간혹 보이긴 하지만 해방후의 민족문학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거나 소홀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먼저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기를 한다.

趙演鉉은 <해방문학 20년>에서 좌우익 문학단체의 민족문학론을 검토한 바 있다.²⁾ 좌우익간의 논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

좌 우 익 문 학	우 익 문 학
1. 계급주의 문학	민족주의
2. 물질적 경제적 조건의 강조	인간의 정신적 조건 강조
3. 사회성	인간성
4. 사회주의 현실주의	사실주의
5. 공산주의	민주주의

李在鉉은 <한국현대소설사>에서, 이 시기의 소설은 문학론의 대립현상으로 대립이 불가피했고 대개의 경우 해방에 의한 고향회귀나 암담했던 식민지 시대를 결산하는 문제 및 남북의 분단화와 이로 인한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갈등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았다고⁴⁾ 이 시기를 정리했다.

한편 白鐵은 <한국신문학발달사>⁵⁾에서 이 시기를 보다 관심있게 다루고, 민족문학론에 대한 좌우익의 논쟁이나 문인들의 모임에 대한 자료도 다수 인용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결론적인 요약은 좌우익의 두 문학단체가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문필가협회의 결성 내용이나 그 진영의 구성 평단 등을 대조하면 그 성격이 전혀 대조적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⁶⁾

“공동이념이어야 할 민족문학의 과제가 구체적·현실적인 과제로서 추구될 때에는 문학가동맹과 문필가협회 사이에는 그 두 단체가 내포한 이태울르기의 거리와 비등한 대척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개된 것이다.”⁷⁾

“여기서 두자는 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론과는 대척적인 하나의 민족주의적인 민족문학론을 볼 수 있는 것이다.”⁸⁾

“이 두 문학 단체의 민족문학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그 문학정책·

2) 趙演鉉, 解放文學 20年(正音社, 1966), 14-15면.

3) 이 요약은 李在鉉, 韓國現代小說史(弘盛社, 1979), 493면에서 정리된 것이다.

4) 주 (3)의 책, 같은 면 참조.

5) 白鐵, 韓國新文學發達史(博英社, 1975).

6) 白鐵, 같은 책, 329면.

7) 白鐵, 같은 책, 333면.

작품 위에까지 반영되어 해방 뒤 문학운동의 2대 조류를 이룬 것이다.”⁸⁾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민족문학론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는 라우익의 민족문학론이 이데올로기 만큼이나 서로 대립을 이룬다는 데 귀결되어 있다. 즉, 두 민족문학론의 다른 점만 주로 거론되었을 뿐 그 공통점이나 문족문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검토가 분명하지 않다. 이는 라우익이라는 이데올로기 내지 정치적 현실에 대한 선입관으로 인하여 양자는 갈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된다는 고식적인 사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갈래의 문학단체는 한 민족이라는 데서 공통점을 지닐뿐만 아니라,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함께 겪었기 때문에 민족의 생존권과 국가의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을 공통의식으로 지녔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8.15와 더불어 민족문학이라는 역사적인 대 운동을 다같이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다르게만 생각하고 어느 한쪽만이 진정한 민족문학론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은 민족문학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데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의지를 모으는 데도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 태도를 지양하고 두 갈래의 민족문학론이 지닌 공통점을 주로 살피는 가운데서 민족문학론의 개념 및 앞으로의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민족문학에 관한 양자간의 문학론을 대비 고찰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일 것이다. 특히 서로의 주장을 격렬하게 드러낸 양파간의 논쟁을 살피면 더욱 분명한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논쟁은 일종의 다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아가서 실상과는 다른 주장도 하게 되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논쟁이 시작되기 전이나 논쟁의 시초에는 서로가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논쟁이 발전되면 될수록 그 견해가 서로 어긋나고 이질화되기 쉽다. 따라서 논쟁은 본래의 의식과 나타난 주장이 다를 수 있으며, 작품의 실상과도 상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설득력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민족문학에 관한 양자간의 문학론과 논쟁을 비롯해서 각 장르별 창작활동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학론으로서 다룰만한 것으로는 두 문학단체가 결성되면서 채택한 “결정서”나 “취지서”, 그리고 양파의 우두머리격인 林和와 朴鍾和의 민족문학론

8) 白鐵, 같은 책, 335년.

9) 주 (8)과 같은 곳.

을 들 수 있다. 논쟁으로서는 金東錫과 金東里的 민족문학논쟁, 작품활동에 들어가서 역사소설에서는 洪命憲와 박종화, 시에서는 李庸岳의 <오랑캐꽃>과 靑鹿派의 <청록집>등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 이러한 대상을 본격적으로 두루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을 한꺼번에 다루고 제기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이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문학과 詩作活動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3. 민족문학론, 그 대립적 동질성

좌익측의 “朝鮮文學家同盟”과 우익측의 “朝鮮文筆家協會”가 자기들의 문학 단체를 결성하면서 채택한 ‘결정서’와 ‘취지서’를 살피기로 한다. 두 단체의 민족문학론이 서로 대립을 보인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백철이 인용한 부분만을 다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맹측의 “결정서”]

(8)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재국과 신생하는 조선과의 유기적 관계를 왜곡하여 조선의 민주주의적 건설을 방해하는 국수주의자, 그들의 비호 밑에 재생을 기도하는 일제의 잔재 및 봉건 유물의 반동적 연합에 대하여 문학자는 단호한 투쟁에 이르러야 한다.

(9) 그러므로 이 대회는 조선의 민족문학이 은아한 서재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특히 강조하고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치열한 투쟁 가운데서 발전되어 갈 것을 지적하여 문학자가 민주주의 조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요청한다.

[협회측의 “취지서”]

...이에 문필을 가진 우리들은 붓을 반드시 정단의 칼로 삼음이 아니나... (중략)... 삼천만의 정열을 집중시키고 公愾를 령성하여 한결같이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옹호되고 계급이 타파되고 빈부가 없는 가장 진정하고 가장 민주적인 국가관, 세계관을 밝혀 세계와 인류에 공통된 민족국가 이념 위에 역사가 중단되었던 조국을 재건하려 함이니 세계에 빛나는 한 민족 한 국가를 자처한 이 민족문화 형성은 소파벌의 독재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요, 전체에의 반동도 묵인되지 못할뿐 더러 논리에 있어서 모순이 없고, 이성애 있어서 준철하며 감성에 있어서 발달하여 스스로 민주 자율하는 고귀한 도덕성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전조선문필가 협회가 한 번은 반드시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적 숙명 아래서 역사적·현실적 필연성을 띠고 탄생하는 바이니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민주주의의 공식적 정당강령화를 넘어서 생명과 부딪치고 다시 생활의 이념이 되어 정치로 향하여 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를 건설하려 한다...

위의 인용을 보면 양측은 분명히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동맹측은 “조선의 민족문학이 온아한 서재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특히 강조하고” 문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나 “치열한 투쟁”을 선동하는 다분히 정치적 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나, 협회측은 “정당강령화를 넘어서” “민주 자율하는” 가운데 “민족문화 형성”과 “민주주의 문화를 건설하려 한다.”

양측의 주장은 이러한 이질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적으로 결성되었으면서도 민족문학론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공통성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질성을 지닌 민족문학론이기는 하나, 민족문학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와 지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 자주 독립적 민주주의 국가 건설

(동맹) : “일제의 잔재에 대하여 문학자는 단호한 투쟁”

“민주주의 조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

(협회) : “가장 민주적인 국가관을 밝혀 조국을 재건하려 함이니”

“한 민족 한 국가를 자처한 이 민족문화 형성”

둘째 : 빈부와 계급의 격차없는 자유 평등사회 건설

(동맹) : “조선의 민주주의적 건설을 방해하는 국수주의자 및 봉건 유물의 반동적 연합에 대한 투쟁”

(협회) :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옹호되고 계급이 타파되고 빈부가 없는 가장 진정하고 가장 민주적인...”

셋째 : 민족문학·민족문화의 수립

(동맹) : “민족문학의 성장”

(협회) : “민족문화의 형성”

이러한 공통성을 지니면서 두 단체는 결성되었으므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동맹이 투쟁적 혁명적이고 협회는 민주적 자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실행의 방법적인 차이는 상이하

지만 민족문학을 수립하여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빈부와 계급의 격차없는 자유 평등 사회를 이룩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일치한다.

지금까지 살핀 바는 두 단체의 결성시에 채택된 그들의 강령이다. 전성주의 민족문학에 대한 의미 해석이나 그들의 지포를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 동맹측이 민족문학의 내용으로 내건 행동강령은 “일제 잔재요소의 소탕과 함께 봉건적인 요소에 대한 투쟁을 통한 민주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이라 했다. 이들의 민족문학에 관한 이론은 주로 임화가 담당했다. 그는 1946년에 열린 전국문학자 대회에서 행한 “조선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대한 연설에서 조선문학의 과제는 계급적인 문학을 부정하고 민족적인 문학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문학상에 있어서 봉건적인 요소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으므로 이것의 제거 없이는 어떠한 문학도 발생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투쟁을 통하여 건설된 문학은 어떤 문학이나 하면 그것은 완전히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문학 이외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민족문학이야 말로 보다 높은 다른 문학의 생성 발전의 유일한 기초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문학전선(장간호, 1945)>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담당할 주력은 벌써 부르조아지가 아니라는 것... 이 시기의 민족문제는 정치에서나 문학에서나 그들을 제외하고 난 진실로 진보적이지요, 혁명적인 계급인 노동자 계급을 위시한 농민과 진보적 시민으로 형성될 통일전선에 속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동맹측의 민족문학론은 일제의 잔재와 봉건적일 요소를 타파하고 계급적인 문학을 배척하는 것이 민족문학을 수립하는 길이라 믿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협회측의 박종화는 1946. 12. 5일자 경향신문“민족문학의 원리”에서 “민족은 전통적인 심리를 기초로 하여 신화가 같고 생활하는 강토를 함께 보장 유지하고 거족적인 이해관저에 있어서 회로에 락을 같이 하는 때문에 비로소 집단의식이 성립되고 이 집단의식은 곧 강렬한 민족의식으로 되는 것이다.”라고서 이어, 조선의 민족문학의 실질과 근간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3.1 민족운동은 조선민족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판단의 분수령이요, 이 정치적 또는 민족적 현실을 전후로 하여 일어난 우리의 신문에 운동은 민족문학수립의 근간이 됐던 것이다”라 하고, 해방 뒤에 “우리의 2세 어린이 입에서 40년전의 우리의 입으로 부르던 애국가가 다시 터져나온 것, 이것이 불변의 민족적이지요, 민족의식이요, 또한 민족문학의 모태가 되는 것

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족문학의 구체적인 예로서 민족의식을 고조하기 위하여 “우리의 2세에게 충무공의 소설을 지어 읽어 주자. 우리들의 팔에게 논개를 회곡을 써서 읽어 주자. 吳達濟, 尹集, 洪翼漢 3학사의 백절불굴의 의기를 시로 지어 들려 주자. 지금 조선민족은 진정한 민족문학 수립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박종화가 주장하는 협회측의 민족문학론을 간추려 보면, 전통적인 문화유산의 계승속에서 민족의식이 성립되고, 3·1운동 전후의 신문에 운동, 해방후의 애국가 부르기 등이 민족문학의 근간이고 모태이며, 선인들의 민족의식을 작품화하는 것이 민족문학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의 전례는 초기에 비하여 상당히 이질화 되어 가고 있다. 그 표현의 농도는 다르지만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한다는 데서는 아직도 뚜렷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협회측이 내세웠던 계급 타파 문제는 이제 동맹측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동맹측의 봉건적인 요소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는데 협회측은 민족의 전통을 옹호하는 것이 민족문학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맹측은 민족문학의 수립을 위해서는 타파할 것밖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는 반면, 협회측은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한 창작활동을 강조한다. 즉, 동맹측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파괴활동이 건설이라고 생각하는데 협회측은 긍정적인 것에 대한 창작활동이 건설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전자는 초기보다 더욱 투쟁적이고 정치적인 색채가 짙어졌으며, 후자는 그 반대로 보다 온건하고 순수한 문학활동으로 변모되어져서, 양자는 점점 더 이질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잠재해 있는 의식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드러난 표현은 이질적 대립성을 보이지만 잠재해 있는 의식은 동질성을 지닐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보면 양측은 적어도 초기에 보였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계급이나 빈부의 격차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듯하나, 협회측이 이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초기에 주장했던 그들의 입장을 바꾸어서 동맹측의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협회측이 초기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계급이 타파되고 빈부가 없는 가장 민주적인 조국”을 재건하는대는 전례가 일치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두 문학단체는 민족문학의 수립, 자주 독립적인 민주주의 국가와 빈부와 계급의 격차 없는 자유 평등 사회 건설이라는 점에서 분명 공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구현하는 방법이 이때울르기 내지 정치 실현의 수단화와 순

수문화화로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문화론이 이질성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4. 민족문화·민족문화의 개념, 그 인식의 극단성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나면 양측의 민족문화론은 그 본질은 같은데, 이를 구현하는 방법만이 다르다는 데 이르고 만다.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근거는 민족문화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에 관한 검토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족문화에 대한 양측의 기본적인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살펴볼 수 없다. 앞서 박종화는 민족의 전통을 유지하고 이를 다시 창작화하는 것이 민족문화의 수립이라고 한 바 있다. 이를 엄두에 둔 듯한 申南澈의 비판과 그가 주장하는 민족문화의 개념을 검토해 본다.

“민족의 문화가 민족문화인 것이니 전통적인 정신적 물질적인 문화유산이 민족문화라고 단순히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래의 문화를 墨守 재생산하는 것이 민족문화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왜 그리나 하던 민족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자,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존재자, 실체가 생산 건설하였던 민족 과거의 문화가 곧 민족문화이니 그것을 고수하는 것은 민족적 전통을 수호하는 소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민족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화의 의의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또 민족문화의 건설이 절규되는 역사적 사회적인 열유를 모르고 말하는 것이다.”¹⁰⁾

“민족문화란 말은 하나의 역사적인 개념이다…민족문화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이다.

(1) 제국주의 국가에 의하여 침략 정복되었던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이 그 침략자, 정복자를 구축하고 해방되어 자주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할 때

(2) 민족 내부의 지배착취 계급을 타도하고 피지배 피착취 계급이 자주적인 국가 영토의 실권을 장악하여 타도된 계급의 遺制와 잔재를 미란 청소하려 할 때

이와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만 비로소 민족문화 건설의 문제가 지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제기되는 것이다.”¹¹⁾

10) 申南澈, 轉換期の 理論(백양당, 1948), 165-166면.

11) 申南澈, 같은 책, 167-168면.

“민족문화 건설의 과업은 정치적 투쟁과 연결되는 것이다.”¹²⁾

위의 글에서 민족문화의 개념이 두 입장에서 맞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쪽은 민족문화를 전통적인 정신적·물질적인 문화유산으로 보고 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다른 한쪽은 침략적 정복자를 구축하거나 민족내부의 지배·착취 계급을 타도하고 이들의 잔재를 비판 청소할 때 민족문화가 건설된다고 했다. 즉, 양측은 전통의 보존과 창산으로 맞서고 있는데 민족문화의 진실은 이러한 극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을 것이다. “민족문화란 맑은 하나의 역사적 개념”이라고 한 것은 타당한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투쟁과 연결되는 것”이나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피지배 계급이 자주적인 국가 영토의 실권을 장악하되 타도된 계급의 억제와 잔재를 비판 청소하는 것”이 역사적인 것은 아니다.¹³⁾ 역사란 과거에의 청산이나 투쟁이라기 보다는 계승이며 발전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처럼 과거와의 단절을 극력 주장하는 까닭은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도하려는 그들의 정치적 이념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金東錫의 다음 글이다.

“이조 오백년 동안 문화는 양반들이 明哲保身하는데 필요한 도구였고 일제 삼십육년 동안 문화는 특정인들이 노예된 신세를 자위하는데 사용된 수단이었다.”

“조선문화의 현대제가 민족문화요 그 구체적 내용이 민주주의라는데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없지만 누가 그 문화건설을 담당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¹³⁾

“시방 조선은 부르조아 데모크라시의 단지라고 하지만 일제 36년동안에 부르조아가 부패했음인지 정치의 추진력이 되키녕 반동화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방 조선의 민주주의 세력은 프롤레타리아의 영도하에 있다.”¹⁴⁾

김동성의 글은 다분히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보다 온건하게 받아드리면 지배계급의 문화를 청산하고 노동자 농민 계급의 문화를 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민족문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본래 목적은 민족문화라는 이름 아래 계급투쟁

12) 申南激, 같은 책, 169면.

13) 金東錫, “朝鮮文化의 現段階”(新天地, 1946. 11월호), 13면.

14) 金東錫, 같은 글, 14면.

과 정치적 혁명을 주도하려는 것이다. 金光均은 “문학의 위기”라는 글에서 좌익측의 이러한 지의를 잘 지적하고 있다.

“국치기념일날밤 문학가동맹 주최로 종로 청년회관에서 열린 문예강연회에서 두어 사람이 시를 낭독하였다. 맨 앞줄에 앉아 듣고 있는 나의 등줄기에서 땀도 같고 바람도 같은 것이 선동하였다. 조선 시가 여기까지 왔고나 하는 감개가 울어나기 전에 첫째 생각나는 것은 시대가 문학에게 욕구하는 것이 무엇이고나 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문학이 그 욕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달라졌느냐 또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에 확신이 서지 않은 나에게 열광하는 청중의 노호 속에서 어떤 부자연한 것이 느껴졌다. 시를 듣는 사람이 시를 한 예술작품으로 받아들리지 않고 거기 담긴 정치적인 ‘아이디어’만에 치중하고 또 이런 요구에 응한 시가 속속 제작된다는 것이 장차 무엇을 결과할 것인가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¹⁵⁾

“민족문학의 수립이란 구호에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한 글도 아직 없다. 아직까지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인즉 삼천만의 8,9할이 노동자 농민이니까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민족문학의 정신이라는 것인데 이 말을 뒤집어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수립이라면 논지가 통하나 어찌하야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수립이 그대로 민족문학의 수립일 수 있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구지 ‘민족’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지 않아도 좋은 곳에 ‘민족’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있는 곳에 이 이론의 비밀 혹은 오류가 숨어 있다.”¹⁶⁾

결국 동맹측은 계급문학을 제거하고 민족문학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프로레타리아라는 한 계급을 위한 문학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민족문학이 아닌 계급문학을 표방한 셈이며,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피지배계급이 국가영도의 실권을 장악하여 타도된 계급을 비판 청소하려는 것 역시 새로운 지배계급을 인정하는 뜻이 되어 논리상의 모순에 빠진다. 이러한 동맹측의 모순은 문학을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순수문학이 곧 민족문학일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이 당면한 현실을 외면한 채 문학을 위한 문학, 또는 예술지상주의적 문학이 민족문학의 본질은 아니다. 민족문학은 민족의 삶과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민족의 삶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¹⁷⁾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것으로 민족문화가 수립될 수도 없다. 국수적이고 복고적인 것이 민족문화의

15) 金光均, “文學의 危機”(新天地, 1946. 11월호), 115면.

16) 金光均, 같은 글, 116면.

17) 趙東一·임철규, “民族文學, 이것이 問題다”(文藝中央, 1978, 가을), 369면.

본질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과거 문화 유산의 청산과 보존, 또는 이의 타파와 재창조는 어느 것이나 민족문화 내지 민족문학 수립의 극단론에 불과하다. 민족문학은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면서 과거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갈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승에는 부정적인 계승과 긍정적인 계승이 있는데, 전자는 전통을 극복하면서 청산해 나가는 것이고 후자는 전통을 재인식하면서 이어받는 것이다. 이점에서 양측의 극단론은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민족적 창조력을 되살리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창조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민족문화 내지 민족문학 수립의 바른 길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민족의 삶과 현실에 바탕을 두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5. 詩作活動, 그 이질적 향토 정서

지금까지 민족문학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통해서 두 갈래의 대립적 민족문학론이 지닌 동질성을 살펴 보고, 또 민족문학론의 본질이나 개념을 대비고찰해서 정리하여 보았다. 이제 시작품을 통해서 두 민족문학론의 실체를 규명하여 보기로 한다.

李庸岳과 청록파 시인들은 양측의 문학단체에 가입하여 좌우익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보이거나 민족문학론을 적극 주장한 일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창작활동을 통해서 민족문학 수립의 일익을 담당했다. <청록집>이 1946년에, 이용악의 시집 <오랑캐꽃>이 1947년에 각각 출판되면서 이 시기의 중요한 詩史的 위치를 차지했다. “청록파의 시사적 의의”¹⁸⁾에 대해서는 鄭漢模가 논구한 바 있듯이, “청록파의 시사적 의의는 전대와의 계승 발전과정의 양상에서도 뚜렷하지만 그 뒤의 세대에게 준 작용과 영향면에서 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의는 청록파가 재인식한 우리의 자연과 향토적 정서에 있다. 이점에서는 이용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용악은 결국 좌익측에 가담되었고 월북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발표된 <청록집>과 <오랑캐꽃>을 통해서 좌우익의 민족문학론이 시작활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좌우익간의 이질성을 살펴려면 金起林의 ‘한 것발 받들고’, ‘데모행렬에 부치는 노래’, ‘어린 공화국이어’, 혹은 吳章煥의 ‘병든 서울’, ‘강도에게 주

18) 鄭漢模, “靑鹿派의 詩史的 意義”, 靑鹿集(玄岩社, 1968).

는 시' 등 강력한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 시가 더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시는 민족문학이라 할 수 없을만큼 선동적 혁명의 시였으며 또한 민족문학의 동질성을 규명하는 데는 하등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록과 가운데서 향토적 정서를 가장 짙게 그려낸 이가 朴木月이다. 박목월의 향토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언급이 있었지만 “박목월이 발견하는 자연의 육체는 향토성에서” 오는 것이므로 “자연의 육체를 탐색하는” 시작의 기초가 바로 향토적 정서라고¹⁹⁾하거나, “목월은 향토적인 자연의 소재를 끌어 올려 하나의 ‘심혼의 자연’을 창조하려”²⁰⁾했다는 데 머물고 민족문학으로서 지니는 의의는 논외로 다루고 있다. 그의 시 중에서 향토성이 물론 쫓기는 구절을 몇편의 시에서 부분적으로 살피면서 논의를 계속해 보자.

윤사월 해 길다/피꼬리 울면
산적이 외딴 집/눈 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이고/엳들고 있다.

「윤사월」

갑사맹기 남골똥/삼삼하구나

「갑사맹기」

강나루 건너서/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가는 나그네
길은 외출기/남도 삼백리
술익는 마을마다/타는 저녁 놀

「나그네」

산이 날 에워싸고/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발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짐을 모아/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산이 날 에워싸고」

여기서 보이는 향토성은 “자연이 육체를 탐색”하거나 “심혼의 자연”을 창조하는 것 같지는 않다. ‘구름에 달 가듯이’ ‘타는 저녁 놀’ ‘어느 짧은 산자락’ 등이 자연을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듯하나, “자연의 신비감에다 작시의 기조”를 두었다고 할 만큼 자연미의 탐구에 투철하지는 못하다. 오히려 자연미보다는 그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낭만

19) 趙演鉉, “自然의 發見”, 靑鹿集(玄岩社, 1968).

20) 鄭漢模, 같은 글 참조.

적 현실을 그리고 있다. 그것은 치열하지도 않고 무기력하지도 않은 시골 사람들의 생활이자 정서이며, 우리의 민족적 정서이기도 하다. ‘문설주’ ‘갑사맹기 남골등’ ‘강나루’ ‘밀밭길’ ‘나그네’ ‘술먹는 마을’ 등의 詩語에서,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지닌 민족적 정서를 발견할 수 있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진은 외출기/남도 삼백리’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에서는 우리 민족의 삶과 현실을 조망하게 해 준다. 그의 시에서 보이는 향토성은 자연애의 究竟이 아니라 민족적 정서에의 享受이며, 자연미에 대한 재발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재인식이라 할 수 있다. 박목월은 목월의 시집 <산도화>의 발문에서 “너무도 친근한 이 우리의 자연, 우리의 향토, 우리에게 깊이깊이 어터 젖은 이 고유한 전통 정서야말로 바로 목월이 디디고 선 바 그의 시의 기반이며 그의 선천적으로 천질적으로 이루어진 이 한국적인 자연정서의 절묘한 가락은” 율조의 한 극치를 이루었다고까지 극찬하고 있는데 재음미할 만하다. 박두진(박두진)이 자연 그 자체에 대한 미의식을 탐구하면서 종교적 피안의식을 갈구하고, 趙芝薰이 회고적 복고적인 취미를 통해서 민족적인 경향과 禪的인 경향을 함께 보이는데 반해서, 박목월은 향토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적 정서를 되살려 준 것이다.

이용악의 시도 이에 못지 않게 향토적이며 민족적 정서를 주제로 하고 있다. 몇 구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해 보자.

들창술 열면 물구지떡 내음새 내달았다/쌍바라치 열어 재쳐던
 석달나무 썩는 냄새 유달리 향그러웠다. [두매산골 (1)]

멧돌방아 그늘도 토담 그늘도/희부엌에 엮어지는데
 어디서 꽃가루 날려오는듯 눈부시는 산머리 [두매산골 (2)]

참나무 불이 이글이글한/오지화로에 감자 두어개 묻어 놓고
 떨어진 서울을 그리는 것은
 도포 걸친 어느 조상이 귀양 와서/일삼든 버릇일까 [두매산골 (3)]

누나랑 누이랑/뽕오더 따러 다니던 길스가엔
 예쁜 아가씨 목을 맨 버드나무 [버드나무]

달빛 말고 머나먼 길 오시리/두 손 합쳐 새빈 절하면 돌아 오시리
 어머니 우시어/밤내 우시어/하얀얀 박꽃 속에 이슬이 두어방울
 [달있는 제사]

「두메산골」이나 「달있는 제사」와 같은 시의 제목에서, 또는 ‘물구지떡’ ‘쌍바라지’ ‘씩달나무’ ‘멧돌방아’ ‘토담그늘’ ‘오지화로’ ‘도포 걸친 어느 조상’ ‘뽕오디’ 등의 시어에서 보이는 향토성은 박목월의 그것보다 공간적으로 더욱 두메로 파고 들었고, 시간적으로 훨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강나루와 밀밭길에 있는 박목월의 출익은 마을에서, 물구지떡과 썩달나무의 냄새가 향그럽고 오지화로에 감자가 익어 가는 두메산골로 들어간 만큼, 훨씬 향토적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목월의 향토성은 도시인의 정서 속에서도 공감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이용악의 그것은 농촌사람에게조차 생경할 정도로 토착적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밀도의 차이는 있지만 향토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과 정서를 그린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양자가 민족적인 삶과 정서를 어떻게 그리느냐 또는 어떤 입장에서 형상화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이질성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인용한 시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다음의 시들에서는 더욱 뚜렷한 대비가 이루어진다.

방초봉 한나절 / 고운 안노루
아래 마을 골짜기에 / 홀로 와서
흐르는 내 물에 / 목을 추기고

[3월]

머먼 산 청운사 / 맑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 봄눈 녹으면

.....

청노루 / 맑은 눈에
도는 / 구름

[청노루]

목월은 도시인, 또는 선비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완상하고 관조하면서 향토적 정서를 미화시키고, 이를 낭만적 현실로 형상화하고 있다.

벗 없을 그때 / 집 한칸 있었으면 덜이나 곤하겠는데
타지 않는 저녁 하늘을 / 가벼운 병처럼 스쳐 흐르는 시장끼
어쩌면 몹시 두 아름다워라.

[집]

그 늙은인 / 안쇼 따라 조이발 저쪽에 사라지고
어느 길손이 밥 지은 자취지 / 깎슬은 돌 두어개 시름집다
여덟 구멍 피리며 앞으랴 꽃병 / 동그란 밥상이며 상을 덮은 흰 보자기
.....

술도 아닌 차도 아닌 / 뜨거운 백탕을 훌훌 마이며 잠이 어질게 살아보리

[길]

용악은 가난한 산골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농사꾼의 처지에서 대상 속에 파고 들고, 가난한 두대생활의 아름다움을 처절하게 그리면서 금핍한 현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것이 목월과 용악의 향토적 정서가 지닌 본질적인 차이이며 좌우익 민족문학의 이질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측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학론이 창작으로 나타날 때는 향토적 정조를 이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향토적인 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민족적인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시단에 <안서민요시집>²¹⁾이 나온 것은 이런 의미에서 주목할만 하다.

6. 민족문학론, 그 나아갈 길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민족문학의 나아갈 길을 점검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로 한다.

(1) 두 갈래의 민족문학은 그 실현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분열과 대립을 보이나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빈부와 계급의 격차없는 자유 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민족문학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우리 민족이 처한 삶의 현실이며 우리 민족문학이 추구하는 바 하나의 동질성이다.

(2) 민족문학의 개념은 과거 문화유산을 보존하거나 재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청산하는 것도 아니다. 민족의 삶과 현실에 바탕을 두고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면서 과거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한 민족문학이 성립될 수 있다.

(3) 민족문학이 창작으로 나타날 때, 선비들의 자연완상적 정서와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의 정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느 것이나 향토적 정서가 흠뻑 배어 있다. 향토적이지 않고는 민족적이지 않다. 향토적이란 자연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생활 현장에서 존재하는 전통적인 삶과 풍속, 생활의식, 미적 정서 등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양측 민족문학의 巨頭였던 김동리의 “무녀도”와 “향토기”에서, 그리고 홍명희의 “임거정”에서 보이는 향토적 정서가 바로 그것이다.

(4)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남북통일이다. 남북통일은 민족적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

21) 金岸曙, 岸曙民謠詩集(漢城圖書, 1948).

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은 빈부의 극심한 격차에서 기인되는 불평등과 불만의 해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을 통한 평화적 남북통일과 빈부의 격차없는 복지 국가 건설이 오늘날 우리 민족문학의 당면한 과제이다.

(5) 이러한 현실을 의식할 때, 우리 민족문학은 구비문학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의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데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비문학만큼 향토적 정서가 짙으며 민족적 동질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비문학의 발전과정은 곧 민중의식이 성장해 온 과정이며, 봉건사회를 청산하고 근대사회를 이룩하려는 민족사의 한 전개이기 때문이다.

민중이 민족의 주체로 받들려질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복지 국가가 이룩될 수 있고, 민중문학이 문학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때 민족문학은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중문학은 민중 스스로가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한 것이며, 민중 스스로 향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발생적이고 토착적인, 민중들의 집단적인 표현이면서 민중의 삶의 현실이나 생산활동과 밀착된 성격을 지닌다. 이런 까닭으로 오히려 민중문학은 문학적 생명력과 예술적 창조력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민중의 집단적인 의식, 곧 민족적인 정서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민중문학은 민중 스스로에 의해서 공동적으로 창작된다는 점에서 민족문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한편, 그 존재 양식상 말로 전승되면서 재창조된다는 점에서 구비문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비문학에 대한 진지한 탐구는 민중문학의 과제를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우리 문학의 나아갈 바와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